



한라산이 새 하얀 옷으로 갈아 입으면서 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멀리 백록담이 보인다.

<제주신보 제공>

# 5色 설국 탐나는도다

## 겨울 제주관광의 꽃 한라산 눈 트레킹

**제주**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 한라산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설국(雪國)으로 바뀌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내린 눈으로 겨울 왕국이 됐다. 사흘간 한라산 모든 탐방로가 통제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겨울 명산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한라산이 새 하얀 옷으로 갈아 입으면서 한라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첫 날인 1일에는 오전 3시부터 한라산 정상 백록담 산행이 허가되면서 수많은 인파가 한라산 정상에서 새해를 맞이 위해 찾았다.

한라산 눈 트레킹이 겨울 제주관광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의 새로운 다짐을 위해 한라산의 눈꽃 산행에 나서고 있다.

한라산은 많은 탐방로가 있어 각 코스별로 색다른 설경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굳이 체력적 부담과 많은 시간을 들이며 백록담 정상을 오르지 않아도 겨울 한라산의 풍광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한라산 등산로는 현재 5개 코스가 있다. 이중 한라산 정상인 해발 1950m의 백록담에 이를 수 있는 탐방로는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 두 곳이다.

어리목 코스와 영실 코스는 백록담 산체에 한눈에 들어오는 해발 1700m의 윗세오름에서 서로 만난 후 남벽을 향하는 코스로, 백록담 정상까지는 갈 수 없다.

서귀포 돈내코 코스 역시 남벽을 거쳐 윗세오름에 이르는 코스다.

각 코스별로 눈 덮인 기암괴석과 숲 터널, 드넓은 대지에 펼쳐진 설경, 그리고 주변 오름과 멀리 바다까지의 조망 등 한라산은 찾는 이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아낌없이 내준다.

겨울 한라산은 돌바닥인 등산로가 눈으로 덮여 있어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없어 그 어떤 계절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 ■백록담으로 가는 성판악·관음사 코스



관음사 코스에서 바라 본 절경.

◇성판악 코스=백록담 정상까지 9.7km로 한라산 등산로 중 가장 길다. 코스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편이어서 백록담 정상을 가기에 제격이다.

성판악 코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백록담처럼 산정호수를 끼고 있는 한라산의 보석으로 불리는 사라오름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 5.8km 지점에서 사라오름 안내판과 나무 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계단을 따라 600m를 가면 사라오름이 품은 산정호수를 볼 수 있다.

산정호수만큼 비교한다면 백록담보다 더 아름답다. 드넓은 호수에 여름이면 호수 둘레 목책 탐방로에까지 물이 가득해 등산화를 벗어야 할 정도다.

겨울이면 호수에 물 대신 눈과 얼음이다. 호수 주변 나무들에 핀 상고대 역시 환상적이다.

사라오름까지는 완만하지만, 이곳부터 정상까지는 경사가 있어 중력과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관음사 코스=정상까지 8.7km 코스. 성판악 코스보다 1km 짧지만 경사가 심해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난이도 최고의 코스다. 힘든 만큼 볼 것도 많은 코스가 관음사코스다.



사라오름이 품은 산정호수.

산정호수 끼고 있는 사라오름...최고 난이도 관음사 코스

숲 터널 어리목 코스·백록담 남벽 한눈에 돈내코 코스

초보자 제격 영실코스 오백장군 전설 간직 병풍바위 장관

눈 꽃뿐 아니라 거대한 암벽의 사면 등 다양한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영실 코스=윗세오름을 지나 남벽분기점까지의 5.8km코스로 한라산 탐방 코스 중 가장 짧고 난이도 역시 가장 낮아 산행 초보자에게 제격이다. 설경을 구경하며 산행하기 좋은 코스다.

시야가 탁 트여 시원하고, 무엇보다 오백장군 전설을 간직한 영실기암의 병풍바위는 다른 코스에서는 감상할 수 없는 최고의 절경이다.

영실주차장에서 윗세오름까지 곳곳에 나무계단이 마련돼 있어 힘들지 않게 걸으며 설경을 감상하기 제격인 코스다.

◇어리목 코스=어리목광장에서 사제비동산까지 약 2.5km까지는 숲 터널 구간이다.

사제비동산부터 시야가 트인다. 저 멀리 우뚝 서 있는 백록담 봉우리가 보이고, 주변 어디에도

## ■윗세오름서 만나는 어리목·영실·돈내코 코스



눈덮인 한라산을 오르는 등산객들.

7km. 코스 길이에 비해 정상 백록담에 이를 수 없는 코스이기도 다른 코스에 비해 평소 등산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코스다.

하지만 눈 쌓인 백록담 산체 남벽의 경이로운 모습을 실컷 감상할 수 있다.

※ 가성비 최고 어승생악코스

어리목광장(주차장)에서 출발해 30분이면 어승생악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오름이다.

경치만큼은 백록담 정상 못지 않아 가성비 최고의 코스다. 정상에서면 사방 거칠 것이 없다.

멀리 제주시와 바다, 그리고 백록담까지. 제주의 모든 풍광을 만끽 할 수 있어 한라산을 오르기에 체력적 부담이 있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제격인 코스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제주신보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新韓道日報는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